

발간등록번호

38-160006-00001-06

# 공군

[www.airforce.mil.kr](http://www.airforce.mil.kr)

2005.3 / 제321호

특별기획 / “공군으로 오세요!” - 공군인이 되는 7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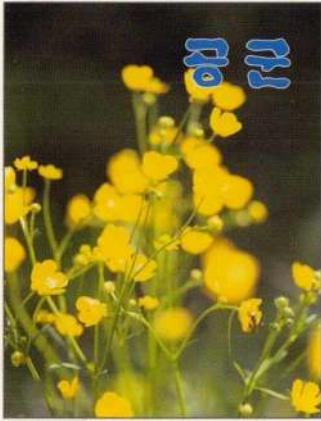
현장탐방 / 공군사관학교 제57기 가입교 훈련

Zoom In / 한국 항공안전의 메카, 항공안전관리단

# 공군

# Contents

제321호 | 2005.3



4	참모총장 스케치
6	공군은 지금
	<b>생각해 봅시다</b>
10	NQ와 PQ의 조화는 가능한가
	<b>공군소식 I</b>
13	안경 써도 전투기 조종사 될 수 있다!
	<b>공군소식 II</b>
14	제19전투비행단 대표병사제도
	<b>I LOVE AIR FORCE</b>
16	前 WBC 세계 챔피언, 박찬희 코치
	<b>특별기획</b>
18	“공군으로 오세요!” - 공군인이 되는 7가지 방법
	<b>현장탐방</b>
22	공군사관학교 제57기 가입교 훈련
	<b>Zoom In</b>
25	한국 항공안전의 메카, 항공안전관리단
	<b>화제의 공군인 I</b>
28	국방부 창안 금상 수상, 제19전투비행단 이득수 원사
	<b>화제의 공군인 II</b>
30	개인 무사고 비행 6,000시간 달성한 이해원 중령
	<b>세계의 항공무기</b>
32	항공무기의 발전 전망
	<b>세계의 우주력/기획연재</b>
34	국가 우주전력과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III
36	3월의 공군 약사



테마가 있는 나들이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전주 기행기	37
그림 이야기 죽음 앞에 선 칸트의 선택	40
법률상식 입법부와 대의제(代議制)	42
건강 365 기능성 위장장애	44
동아리 마당 제38전투비행전대 유술 동아리 『니온 벨리』	46
장병문예 봄의 길목에 선 초소에서	48
문화마당 3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50
마음으로 읽는 글 칭찬합시다	52
영화 이야기 백만장자의 영광과 고독, 에비에이터(Aviator)	54
책으로 읽는 세상 2010 대한민국 트렌드	56
기상전망대 독자의 소리	57
다른 그림 찾기	58
보라매 단상	61
알립니다	62
	63



특별기획 - 공군인이 되는 7가지 방법



한정영방 - 공군사관학교 제57기 기입교 훈련



테마가 있는 나들이 -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전주 기행기



마음으로 읽는 글 - 칭찬합시다



영화 이야기 - 에비에이터(Aviator)



# 참모총장 스케치



## 설 맞아 격오지 부대 장병 격려

이한호 참모총장은 2월 9일, 제314 관제대대와 177-3방공포대를 방문, 설을 맞이해 24시간 영공감시 임무 수행을 위해 고향에 가지 못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설날 아침, 장병들과 병사식당에서 차를 지내는 모습

## UAE 공군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2월 1일,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의 『칼리드 알 부아나인』 공군사령관을 공군본부로 초청하여, 한·UAE 공군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 공군 정보보호 상황실 순시

참모총장은 2월 15일, 군내 최초로 신설된 공군 정보보호 상황실을 순시하고, "가상공간은 다음 세대의 핵심 전장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최고의 정보전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임장교 임관 축하

참모총장은 공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113기 공군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신임장교들의 임관을 축하, 격려했다.





1 전투기 조종사와 정비사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11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한 '항공기 정비사 전투기 탑승 체험 행사'



2 공군 군악대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공연 분야 전문가들을 부대로 초빙하여 '군악대 직무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3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 구조대가 설악산에서 실시한 동계 산악 빙·설벽 구조훈련



4

최근 경남 진주시에 한 마밭에서 6·25 당시 투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폭탄이 연속적으로 발견됐다. 사진은 폭발물 발견 현장에 급파돼 신속히 폭발물을 처리하고 있는 제3훈련비행단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

5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5전술공수비행단 장병들



6 2월 9일,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제15훈성비행단에서 실시한 한국 민속놀이 행사. 이 행사에는 미 육군17항공여단 장병들도 참가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미군간 화합을 다졌다.



7 2월 23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럼을 까고 있는 공군 장병들



8 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 부대 차량에 전조등 자동 점등 장치를 장착, 주간 전조등 켜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제10전투비행단





**9** 부대 인근 '조정리 노인 요양원'을 방문,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제17전투비행단 장병들



**10** 케이블 방송 M.net의 'School of 樂'  
코너를 통해 제20전투비행단에서 실시된  
깜짝공연을 펼치고 있는 인기 여가수 채연 씨

**11** 2월 2일에서 5일까지 4일 동안 제8전투비행단에서  
실시한 '사랑의 헌혈운동'





# NQ와 PQ의 조화는 가능한가

문화관광부 국어심의위원/목원대 교수 김슬옹

## 슬옹 형님께

언제가 편지 띄운 것 같은데 내내 소식이 없군요,  
외로운 전방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이 길্ষ이가 슬옹 형님께 안부 묻습니다,  
참으로 희한하더군요,  
한 열흘 전 전우신문 한 장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심심하던차 한 문귀를 읽어보니 우연히도 눈에 띄  
세 글자 김슬옹, 어디서 많이 들던 이름이라 생각되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역시 형님이 틀림없더군요,  
위에 단체 사진 속에 새까맣게 박힌 인물, 농민 위해  
군부대 내 종이 컵을 모아 시골에 보낸다는 기사 한 토막,  
하마터면 슬옹 형 얼굴에 대고 실례할(?) 뻔 했죠 뭐,  
위대한 삶에 위대한 발견이었죠,  
시간 없어 이만 줄입니다,

1987년 5월 17일 전방에서 일병 길्ष 드림,

1987년에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선배인 나에게 현역으로 근무하던 후배가 보낸 편지 전문이다. 다 알다시피 그 당시 방위병은 군인이 아니다. 그래서 입대 제대라는 말 대신에 소집 해제라는 말을 쓴다. 전우신문은 군인을 위한 신문이므로 군인이 아닌 방위병은 전우신문에 실릴 자격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사진까지 실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오로지 농촌의 내 고장을 위한 작은 봉사 때문이었다.

14개월 근무에서 18개월 근무로 바뀌면서 방위병에 입대한 덕에 10여개월이 지나서야 고참이 되어 소대장이 되었다. 솔직히 방위병에게 현역 같은 군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대신 지역 방위의 성격을 위해 지역 봉사를 하는 방식으로 단합을 꾀하고자 하였다. 솔직히 애향심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방위병다운 군기도 잡고 단합도 시키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다목적 용으로 그런 일을 기획했던 것이다.

### 공동선(共同善)을 통한 갈등 해결

내가 들어갔을 때는 방위병과 현역과의 갈등이 심하던 시절이었다. 다행히 정보처 비취인가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현역들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험을 살려 방위병과 현역과의 단합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 일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종이컵 모으는 일에 현역들도 같이 동참해 준 것이다.

군대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군대 얘기로 시작하니 식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찌랴. 전우신문에 실린 최초의 방위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면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인 것을. 사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종이컵 모아 농촌에 보내는 운동을 통해 물과 기름과 같은 방위병과 현역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 취급 못 받던 방위병 인권 문제와 단합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던 기억이 늘 자랑스럽고 새롭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 NQ와 PQ?

최근 NQ(Network Quotient)가 유행이다. 풀어 말하면 공동체 참여 지수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동체 참여 지수는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NQ와 PQ(Personality Quotient : 개성 지수)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결합시키느냐이다. 군대의 경우는 더욱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군대는 NQ만이 필요한 사회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투철한 정신 없이 군인 정신이란 없는 것이므로 결국 NQ와 PQ의 조화가 가장 절실한 집단이 군대다. 나는 그 조화의 근본을 배려 정신에서 찾는다.

국가에 대한 배려, 민족에 배려, 사회에 배려라는 거시적인 배려부터 옆 고참에 배려부터 후임병에 대한 배려까지... 그 숭한 배려가 서로 이뤄질 때 내 개성에 대한 배려도 이뤄지는 것이다.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다. 옛날에 한 쪽 눈을 사냥으로 잃은 왕의 이야기이다. 왕은 어느 날 아주 유명한 화가를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그 화가는 왕의 얼굴을 그대로 그렸다. 그랬더니 왕은 그 초상화를 보고는 화가를 처형했다. 또 다른 화가를 불러 그리게 했다. 그 화가는 먼저 화가가 그대로 그려 죽은 것을 알고 왕의 얼굴을 성한 모습으로 그렸다. 왕은 먼저 번과 같이 똑같이 분노하고 그 화가를 죽였다. 세 번째 화가가 불러 왔다. 그 화가의 그림을 본 왕은 그를 죽이기는 커녕 오히려 큰 상을 내렸다. 어떻게 그렸을까?

왕이 화살을 당기며(옆얼굴을 보여줘 성치 않은 쪽 눈을 가림) 사냥을 하는 용감한 모습을 그렸던 것이다. 물론 왕의 자세는 옳지 않다. 아주 잔혹한 전제 군주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세 번째 화가의 남을 배려하는 자세일 뿐이다.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애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족한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서로 배우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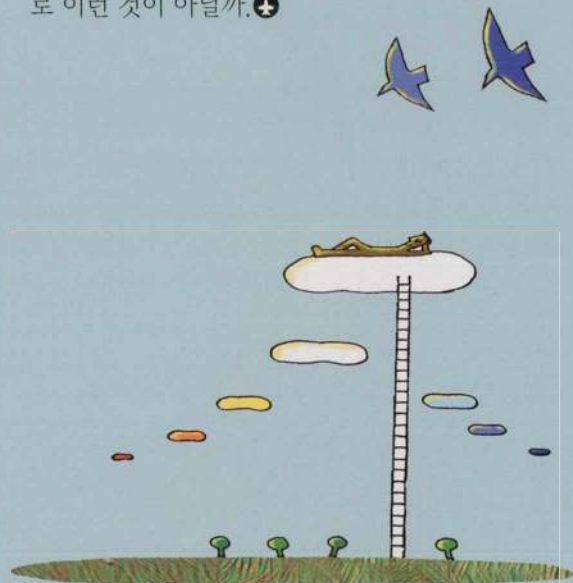
그 화가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잔혹한 왕 술탄을 이야기로 치료한 세헤라자데를 연상시킨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그림으로 잔혹한 왕의 상처

를 보듬어 주었던 것이다. 둘은 결국 그림과 이야기를 제대로 따뜻하게 다룸으로써 흥포한 왕을 구제할 수 있었다.

### NQ와 PQ의 조화, 이상적인 거리 찾기

결국 우리네 인생은 배려를 통해 상처와 문제를 보듬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대는 전쟁과 폭력이라는 상처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가장 평화로운 배려를 실천하는 곳이다. 군기는 서로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신, 육체 무장이다.

NQ와 PQ의 조화의 길은 겨울잠 자는 고슴도치 이야기가 제격이다. 서로간의 상호작용(NQ)과 개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프랑스의 들뢰즈라는 철학자와 가타리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든 예인데 이런 것이다. 엄마 고슴도치와 딸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 서로 껴안는 방식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꼭 껴안았다가 서로 아파서 물러난다고 한다. 그런 다음 다시 거리를 조절하게 되는데 서로 껴안으면서도 찢리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거리를 유지하여 서로 꼬옥 안는다는 이야기다. 서로의 개성과 자아를 존중하면서도(찌르지 않기) 함께 하나가 되는(체온 나누기) 이야기다. 배려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



# 안경 써도 전투기 조종사 될 수 있다!

## 조종자원 선발 시력기준 0.5로 조정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조종사의 꿈을 포기한 청소년들에게도 “빨간 마후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군은 최근, 조종자원인 사관생도와 조종장학생 선발 시력기준을 나안 0.8에서 0.5로 조정(굴절률 -1.5 디옵터 이상)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기준은 2006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올해 지원하는 수험생들과 공군 조종장학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적용된다.

## 첨단 무기체계로 인한 시력 의존도 감소

금번 기준 조정의 배경은 첨단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인하여 비행 임무시 조종사의 시력 의존도가 감소한데 있다. 현재 공군은 조종사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첨단장비인 ‘위성항법장치인 GPS’와 ‘장거리 탐지 레이더’, 항공기의 비행정보를 조종사에게 시현해 주는 영상장치인 ‘허드(HUD, Head Up Display)’ 등의 장착은 물론, 레이더 신호 및 적외선 추적을 이용한 무기의 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조종사는 시력보다도 작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첨단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요구받게 된 것이다.

## “0.5로도 충분히 비행 가능해”

조종자원의 후보군인 청소년들의 시력변화도 이번 시력 기준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0.8 이상의 시력을 가진 학생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감소된 것. 0.8 이상의 시력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6만명인데 비하여,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이 30만명으로 늘어난다(교육인적자원부 통계).



공군본부 비행교육과장 이상욱 대령은 “현재 그리고 미래 공군이 갖게 될 첨단 전력을 고려해 볼 때 0.5의 시력으로도 충분히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강조하며, “이번 시력기준 조정이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울러 공군 우수자원 확보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군은 앞으로 조종사용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안경을 쓴 조종사들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습기와 충격에 강한 조종사용 안경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이다. ⬇

원고정리 편집실



“즐거운 병영생활,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요!”

## 제19전투비행단 대표병사제도

“지금부터 대표병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쾅! 쾅! 쾅!”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 주임원사실에서는 매주 화요일, 대표병사 회의 의장인 유충열 병장의 회의봉 소리로 각 대대 대표병사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표병사회의’가 개최된다.

### 대표병사 회의 시행으로 병사 자치제 정착

대표병사는 각 대대 내무실장인 병장을 후보로 대대 병사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6개월 동안 대대 대표병사로 활동하게 된다.

대표병사들은 병영 생활 속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함께 모여 토의하고,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상부에 건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상명하복식의 의사전달 체계에서 보면 매우 파격적인 일. 하지만 이러한 대표 병사제도에 대해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 또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군기강 확립이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대표 병사제도를 통한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주인의식 속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반복된 관등성명’,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등 잘못된 군대용어 사용이나 병영내 잔존하는 악폐습에 대해 대표 병사들이 앞장서서 근절 예방책을 실천하고, 일과 후엔 일정시간 체육·문화 동아리 활동으로 활기찬 병영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대표 병사제도로 인해 산재되어 있는 내무실까지 의사 결정 내용이 왜곡 없이 직접 전달될 수 있고, 각종 비행단 행사에 병사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례로, 지난 10월에 개최되었던 ‘병사의 날’ 행사는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대표 병사를 주축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비행단 간부들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하였다.

### 인트라넷 통한 동기간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그리고 19비 인트라넷 홈페이지에는 병사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병사동기코너”이다. 비행단처럼 규모가 큰 부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군대에 함께 입대한 동기일지라도 특기가 다를 경우, 전역식에서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트라넷에 동기코너가 마련되면서, 동기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병사들 중심으로 병영생활 명랑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요즘에는 인트라넷을 통해 만들어진 동기간의 친분이 오프라인까지 이어져 병사들끼리 모임을 갖는 모습도 부대 내 매점에서 종종 볼 수 있다.

### 비행단 PC방 새단장, 취미생활·편의시설 지원 확대

19비 단주임원사인 신용이 원사는 “장병들이 자율적으로 병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사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또한 최근에는 장병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부대내 PC방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취미생활과 편의시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병사들의 활발한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제19전투비행단 대위(진) 조 요 진



# 공군사관학교 ‘챔피언 권투교실’

- 前 WBC 세계 챔피언, 박찬희 코치 -

## 공군사관생도와 권투?

그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 기자는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생도에 대해선 ‘웬지’ 차분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권투에 대해선 ‘웬지’ 격렬하고 거친 이미지를 가져 왔었다. 그래서인지 월간 ‘공군’ 편집장교로부터 ‘공사 권투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사생도와 권투,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어딘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지난 1월과 2월, 공사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스포츠는 바로 ‘권투’였다. 왕년의 스포츠 스타, WBC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박찬희 씨의 권투교실이 공사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것. 공사생도와 권투, 거기에 박찬희 챔피언까지... 호기심이 발동한 기자, 청주 외곽에 자리 잡은 공사로 발길을 향했다.

공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8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생도들의 동계훈련에 前 WBC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박찬희 씨를 특별 초빙하여 ‘챔피언 권투교실’을 진행했다. 마지막 수업시간에 맞추어 찾아가 권투교실에서 기자는 지난 5주간 기량을 쌓은 생도들의 스팅링 장면까지 참관할 수 있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놀라운 생도들의 기량과 생도교육에 대한 박찬희 씨의 열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마지막 수업을 아쉬워하는 생도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리시는 박찬희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권투와 공군은 닮은 점이 있다”

먼저, 공사의 권투교실 제의가 다소 생소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했다. “사실 여러 곳에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늘 마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공군을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공사생도들을 만나 권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기회에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주저 없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투라는 운동은 좁은 공간, ‘사각의 링’ 안에서 정직하게 두 손을 가지고 상대와 1:1의 대결을 하는... 상당한 정신력과 체력을 요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사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지요. 파일럿 역시 전시엔 하늘이라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적과 1:1로 마주해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권투와 공군이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이들도 공사생도들이 권투의 매력과 가르침을 금세 느끼고 배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 권투기량과 함께 강인한 정신력도

5주라는 기간이었지만 횟수로는 10회. 권투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이 아니었나 싶었으나 생도들이 보여준 실력은 기대 이상이였다. 생도들에게 단지 권투라는 운동의 기술을 전수함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육기간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박찬희 씨.

그는 호기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매 수업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생도들의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기량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단지 생도들에게 권투라는 운동을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반이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를 구호처럼 사용해, 하면 된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이미 50%의 성공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생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권투기량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정신력을 길러주자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았지요. 그러한 제 마음이 생도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잘 따라줘서 저에게도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생도들과 교육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

한편, 박찬희 씨의 매니저이자 프로모터인 김용일 씨도 교육에 참여했는데, 그는 생도들을 위해 연습용 '미니 링'을 기증하고 15년간의 권투 지도경험을 살려 함께 생도들을 지도하였다. 또 그는 교육 초기 아직 기본기와 공격 및 방어법에 서툴렀던 생도들을 가르치다 손바닥에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열심히 따라주는 생도들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5주를 보냈다고 했다. 박찬희 씨는 160명의 생도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이 혼자 힘으로 매우 벅찼을 것이라며 함께 참여해주신 김용일 씨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다.

###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

짧고 패기 넘치는 생도들과 함께 한 5주간의 교육기간. 그동안 기억에 남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다는 박찬희 씨. "처음에는 생도들이 얼마나 권투교실에 관심을 가져줄까 걱정도 있었습니다.(웃음) 그러나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매 시간마다 체육관으로 들어서는 저를 박수와 함께 열렬히 맞이해주는 생도들 덕분에 챔피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따라 준다는 생각에 오히려 제가 감사히 그리고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희 씨는 스스로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아프더라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춘 공사생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여 4년 후 멋진 군인으로 대한민국 공군을 이끌어 나갈 생도들에 대한 기대도 함께 전하셨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박찬희씨만의 강인한 에너지와 정신력. 미래 전투조종사를 꿈꾸는 사관생도들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지난 5주간의 시간이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확신하며 박찬희 씨와의 아쉬운 인사를 나눴다.Ⓜ

객원기자 오 경 수



# “공군으로 오세요!”

- 공군인이 되는 7가지 방법 -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병역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게 된다. 육·해·공군 중 어떤 군을 선택할 것인지에서부터 어떤 신분으로 입대할 것인지까지... 이것은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나 진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 모든 고민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군인이 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 1. 공군사관학교



1949년 6월 10일 제1기 사관생도 97명의 입교와 함께 시작된 공군사관학교는,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현재의 청주 캠퍼스로 이동하면서 조국 영공수호와 미래 항공우주시대를 주도할 교육여건을 갖추고 지·덕·체와 부대 지휘능력을 겸비한 정예 초급장교를 육성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은 일반대학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교육을 중심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일반 교양교육과 공군장교 및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군사전문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생도들은 졸업시 전공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정규수업 외에도 수영, 운전교육, 항공기 및 글라이더 조종 실습, 영어회화, 해외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검도, 유도, 태권도 중에서 1단 이상을 획득하게 된다.

사관생도는 졸업과 동시에 공군장교로 임관하며, 졸업생의 대다수는 전투기 조종사, 각종 지원기(수

송기, 헬기 등)조종사 등 조종분야에서, 그 외에는 항공통제, 항공무기정비, 인사행정 등 20여 개의 전문분야에서 공군의 핵심간부로서 근무하게 된다. 군 복무 중에는 개인의 직무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민간대학을 비롯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민간항공사로도 진출할 수 있다.

## 2. 공군 사관후보생 과정

1948년 항공기를 배출한 이후 얼마 전 임관한 113기까지 2만 4천 여 명의 장교를 배출한 사관후보생 과정은 공군 창설과 함께 시작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군 장교 양성의 중요한 축이다.

사관후보생 과정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여름과 겨울에 선발한다. 선발은 신체검사와 면접, 학과 시험을 통해 진행되며, 합격자들은 14주의 기본군사훈련을 거쳐 정예 공군장교로 임관하게 된다(단, 공인회계사, 태권도 특기자, 어학 우수자, 공사 및 기술학교 교관은 별도 선발함).

사관후보생 과정을 통해 공군은 사회의 고급인력을 영입할 수 있고, 임관자 개개인은 군 장교로서의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과 리더십을 습득할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며, 연장·장기 복무신청을 통해 본격적인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 3. 공군 조종장학생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는 국내 4년제 대학교 1~3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험보조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졸업 후 공군 비행교육과정을 거쳐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제도이다.

1993년부터 선발을 시작한 공군 조종장학생은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으며, 선발된 인원의 50% 정도가 '빨간 마후라'의 길을 걸었다.

지원자격은 임관일 기준 만 20세~26세까지의 남자이며, 선발은 매년 4월에 이루어진다.

선발된 후에는 매학기당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을 얻어야만 조종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항공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정밀 신체검사에 통과해야 하므로, 규칙적인 생활과 체력단련 등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조종장학생은 대학 졸업 후 공군에 입대, 14주 간의 기본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조종장교로 임관, 소정의 비행교육훈련을 거치게 된다. 군복무시에는 봉급 이외에 비행수당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되며,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또한 임관 후 국내·외 대학원 및 군사기관으로의 위탁교육 기회와 함께 전역시에는 민간항공사 및 항공관련 업체 취업추천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 4. 공군학생군사교육단(R.O.T.C)

공군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은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을 담당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사교육과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교육을 통해 확고한 충성심 배양, 장교가 가져야 할 필수적 소양 완비, 기본전술·전기 습득, 소부대 지휘능력을 함양하고, 투철한 군인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남자이며, 선발기준은 운항과 전공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선발, 일반학과는 종합성적순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

학군사관후보생에게는 장학금과 피복, 교재, 장비 등이 지급되며, 학군단 교육과정은 교양선택으로 분류, 졸업 이수학점 취득(8학점)이 인정된다. 교육수료 후에는 공군장교로 임관, 전공분야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장기복무 신청을 통한 직업군인으로서의 정착도 가능하다. 장기복무시에는 국내·외 민간대학원 위탁교육 기회가 부여되며 비행훈련 수료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전역 후에는 군과 산업체간 협조에 따라 민간항공사 및 관련업체 취업추천의 혜택을 받으며 복무기간은 경력에 가산된다.



## 5. 공군기술고등학교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영공방위와 항공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969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어, 34년 동안 항공전력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인 기상, 정비, 무장, 통신, 관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지원자격은 입학일 기준 만 15세~17세의 중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지며, 원서접수는 매년 7월에 시작된다.

학생들은 3년간의 교육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교과목은 물론, 기상관제, 통신전자, 항공정비 등 항공관련 전문교과목과 졸업 후 공군 부사관 임관에 따른 군사학을 이수하게 된다. 재학 중 학생들에게는 의식주 지원과 교육비, 학생보급 및 수학 보조비가 지원되며, 민간학교와 마찬가지로 여름·겨울방학과 수학여행, 주말 외출·외박이 실시된다.

기수별 우수자원에 대해선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전국 유명 전문·기능대학으로의 위탁교육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의무복무 기간은 졸업 후 7년이며, 그 이후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 생활을 계속하거나 전역할 수 있다. 군 생활 중 개인 발전을 위하여 주·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으며, 대학 과정 중 조종장학생에 응시하거나, 졸업 후 사관후보생에 지원함으로써 장교로 다시 임관할 수도 있다.

## 6. 공군 부사관후보생 과정

공군 부사관후보생은 미래 첨단 항공우주시대와 지식정보화시대 공군력의 핵심 기술 인력으로서, 또한, 군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 각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임관일 기준 만 18세~27세까지의 남자 및 미혼여자이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모집일정은 매년 3회, 1월과 5월, 9월에 원서접수가 실시되며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다.

선발에 합격한 지원자는 14주간의 군사훈련을 통해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며, 현역(상병, 병장) 전역 후 2년 이내 지원자의 경우 임관시 장려수당이 지급된다.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며, 임관 후 2년간은 영내생활을 하게된다. 군복무 중 야간대학 취학 및 해외유학의 기회가 부여되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을 받게 된다. 또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장교지원이 가능하다. 기술·과학군이라는 공군의 특성상 복무를 통해 항공·전자·전산 등 각종 기술 습득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가 많으며,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고 전역을 할 경우, 유관 기업에 대한 취업알선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7. 공군 병 입대

입대영장을 받고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하게 되는 육군 병과는 달리, 공군 병으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공군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물론, 경쟁률도 상당하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공군 병사들의 자부심이고, 공군의 경쟁력이다.

지원자격은 지원일 기준 만 18세~25세까지의 남자이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매달 1일에 시작되며, 지원서 작성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체검사와 학술평가,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통해 기본제식 및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공군 이병으로 거듭나게 되며, 전공특기에 따라 일정 기간 정비, 무장, 전산, 인사 행정 등 실무교육을 받은 후 전국의 각 공군기지로 배치된다.

복무기간은 27개월이며, 연가, 특별휴가와와는 별도로 6주마다 2박 3일의 외박이 실시된다. 또, 첨단 무기체계를 다루는 공군의 특성상 복무를 통해 배운 기술들을 이용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기회가 많으며, 전역 전에는 별도의 전역준비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비행단을 비롯한 많은 공군부대들이 상가와 식당가, 영화관, 도서관, 스포츠 시설, PC방 등을 잘 갖추고 있어 여가를 이용한 문화생활 및 자기개발이 용이하다.☺

원고정리 편집실

※ 각 신분별 모집방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 「공군모집」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꿈을 향해 날개를 펼쳐라!

공군사관학교 제57기 가입교 훈련



“기 상 5분 전!!”

이른 새벽의 정적을 무너트리는 구령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루를 여는 그 소리는 가입교 예비생도들에게는 바로 위기 그 자체이다. 훈련으로 시작하여 훈련으로 끝나는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당장 눈앞에 닥쳐온 시련은 비록 그 선택이 자의였을지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어제 훈련의 여독이 풀리지 않은 무거운 몸을 부산하게 움직이며, 훈련을 준비할 때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묘한 떨림으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가입교 예비생도 앞에서는 어떠한 고요함도 폭풍 전야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만감이 교차한다. 사람은 간사하게도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머리 속에 아련히 스쳐 가는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

## 가장 중요한 것은 극기(克己)

낮선 전투복을 입고 두 손에 들린 차가운 총기의 섬뜩한 감촉을 느낄 틈도 없이 동기생들과 훈련장에서 보내는 5주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장감은 매일 아침부터 잠자리에 몸을 누이는 순간까지 쉴 틈 없이 그들을 엄습한다. 그것은 일반대학에서 또래의 친구들이 경험하는 자유나 즐거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들에게 가입교 과정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 순간, 상상할 수도 없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끊임



없는 포기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예 공군의 사관생도가 되는 과정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 선배들의 박수 속에서

가입교는 많은 선배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단순한 신고식이나 오리엔테이션의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는 5주 동안의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통한 극기와 인내의 증진, 정예 공군의 사관생도로의 관문, 또한 단기간에 군인으로서 기본정신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것까지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따라서 선배들의 박수 속에는 격려와 기대의 의미가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비생도들에게 이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 과정을 먼저 겪었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비생도들의 지도를 맡은 선배생도들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그들을 채찍질하고 다독이며 이끌어간다.

### 정식생도가 되기 위한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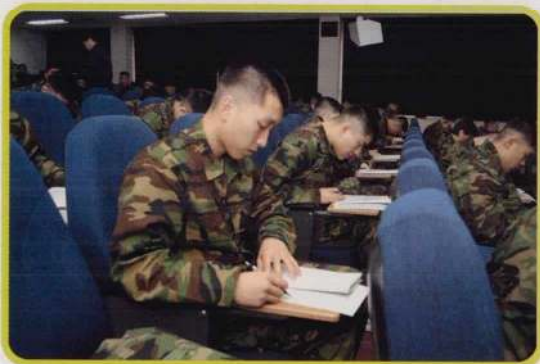
훈련을 담당한 지도생도들의 1차 목표는 예비생도들이 새로운 사회(사관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잘 갖추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고요령이나 제식에서부터 체력과 근력강화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훈련의 커리큘럼도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이번 57기 가입교는 군사적인 기술 습득보다 명예심과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비중을 높여 인성교육에

시간을 대폭 할애하였다. 또한 야외훈련도 예비생도들의 적응시간을 고려하여 강도를 조절하고, 지나친 성취를 바라는 대신에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예비생도들이 서서히 배워 익힐 수 있도록 훈련방법을 대폭 수정하였다.

### 50년간 이어온 가입교 훈련의 전통

예비생도들이 힘겨운 훈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선배들과 패기와 정열로써 성장해나가는 후배들의 상호 과정이 50여 년 간 반복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전통을 가늠하는 기준에서 얼마나 오래 되었나 여부는 다른 항목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통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여 온 경험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마련이고, 얼마나 그 의미를 잘 보존하였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가입교도 필요와 요구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그 근본 취지와 정신은 끊임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의미는 예비생도 개개인의 변화, 즉,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에서 정식 사관생도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에 있다.





### 부딪혀 넘어지며 성장한다.

예비생도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한다. 만약 거기서 실패한다면 가입교를 견뎌야 할 이유는 없어지고, 결국 도태되고 만다. 갈등과 고민, 그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상념 속에서 예비생도들은 하루하루 성숙해간다. 가입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사고(思考)와 자아의 성숙에 있다.

따라서 훈련의 완성은 사관학교 입교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인내와 의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 속의 나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입교, 새로운 시작

2월 19일. 가입교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의 축하와 환호 속에서 막을 내렸다. 단 5주 사이에 낡을 대로 낡아버린, 빛 바랜 전투복이 아니라 단정한 생도 정복을 입은 그들의 단정한 모습은,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멋진 생도의 정복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시련을 견디고 도전을 극복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멋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예비생도가 아니라 공군사관학교의 1학년 생도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가입교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 확신한다. ⚡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김 태 군



한국 항공안전의 메카

# 항공안전관리단



**안**전불감증. 마땅히 불안해하며 안전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한 감정을 일컫는 말이다. 요즘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에서 안전불감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항공안전관리단(이하 항안단). 투철한 안전 의식을 전파하는 그곳. 항안단을 찾아가 보았다.

## 항공안전의 파수꾼!

항안단은 안전에 대한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전문조직이다. 공군에서 일어날 법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사고조사 및 안전진단, 안전 연구 등을 하는 곳이다.

항안단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비행 안전 전문 과정, 항공기 사고 조사 과정, 조류 통제 안전 과정 등 연간 8개 과정이며, 이 중 항공기 사

고 조사 과정을 비롯한 3개의 과정에 대해선 건설교통부로부터 항공안전전문 교육기관인증까지 받았다. 항공안전전문 교육기관인증을 받은 기관은 군내에선 항안단이 최초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2~3개가 전부라고 한다. 게다가 이곳처럼 제대로 된 장비와 시설,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시스템을 갖춘 기관은 한국에선 항안단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래서 항안단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공군의 조종사나 부사관만이 아니다.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들이나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군의 안전 임무 요원 등도 항안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항안단은 좁게는 공군의 안전을 넓게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대인 것이다.

## 우리나라 항공안전의 메카 항안단

항안단은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항안단이 있기 전에는 많은 조종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항공 선진국에 가서 항공안전에



교육에 입과한 생도들에게 사고항공기 잔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고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항안단에서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안전 지식이나 절차 등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부터 이러한 해외교육이 점차 국내교육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식 교육을 통해 지금은 해외교육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뛰어난 교육에 외화절감까지! 항안단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항안단은 현재 체계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안전 연구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계통 없이 우후죽순 이루어지던 연구 및 세미나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각 분야간, 각 기관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안단은 노력하고 있다. 작년, 완벽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수도권과 근접한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써 항안단의 이러한 행보는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머지않아 한국 항공안전의 메카로 떠오르게 될 항안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최첨단 설비와 체험학습장이 모여 있는 곳

얼마 전 건교부로부터 항공안전전문 교육기관

으로 인증 받아 좋은 환경과 높은 교육의 질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확인시킨 항안단. 그 자랑스러운 항안단의 교육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항안단의 최고 어른이신 오중기 단장님이 직접 인솔까지 해주셨으니... 월간 『공군』의 객원기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이러한 행운에 감사하며! ^^ 기자가 둘러본 동선에 따라 항안단의 교육시설을 살펴보자.

먼저, 찾아가는 곳은 "조류충돌방지자료실"이다. 많은 종류의 새가 전시되어 있고 새에 관련된 각종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 걸음으로 보기에는 공군 부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가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불현듯 새를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도 비행 중 엔진에 새가 흡입되어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조그만 새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 때문에 각종 종류의 새를 파악하고 분별하여 항공기와의 접촉 사고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곳이 하는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심리학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강의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둔

조류충돌방지 자료실



화재폭발 실험실



4학년 학생들이다. 항공기와 심리학? 웬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항공기의 사고는 비행 착각과 같은 심리학에 관련된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심리학은 매우 중요한 강의이다. 수업을 듣고 있는 생도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니 앞으로 공군의 안전은 믿어도 될 듯하다.^^

공군부대에 와서 객원기자 비명을 지르다! “화재폭발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실험 때문이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오던 정전기가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그마한 먼지가 정전기와 맞닿았을 때 발생하는 폭발을 보기위해 실험을 했던 것! 어릴 적 조그만 성냥개비 하나로 장난치다 호되게 당했던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불장난은 하지 않았던 것처럼 “화재폭발실험실”에서 실제로 폭발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정전기 하나, 먼지 하나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 실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객원기자를 가장 설레게 했던 그곳. 바로 “비행안전모의훈련실습실”이다. 신고 있는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들어가 야만 하는 이곳은 먼지와 습도 등에 민감한 최첨단 비행안전모의훈련장비들이 들어차 있었다.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는 오락게임을 연상케 하는 이 장비는 항공생리적인 요소를 첨가하고 각종 날씨상황이나 비행장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경험해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장비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일부나마 느낄 수 있어 경험의 느낌은 더욱 생생하다. 이 외에도 사고잔해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실습장, CBT



비행시뮬레이터로 비행상황에 대한 가상체험을 하고 있는 객원기자

실, 교육생 숙소 등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잘 만들어진 교육시설과 장비, 현대화된 실습장과 그 곳을 가득 메운 교육생들의 열기... 든든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안전을 제일로!**

“작년 여름, 이곳 평택으로 등지를 옮기면서 안전교육과 연구를 위해 많은 설비를 보완했습니다. 이제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연구활동과 교육과정의 활성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중기 단장님, 지나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향안단 요원들. 향안단의 본격적인 도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안전이라는 것은 비단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갖추어진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투철한 안전의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개개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안전은 유지된다. “안전제일”의 구호아래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항공안전을 위해 바빠 움직일 그들을 위해 파이팅을 외쳐본다.☺

**“안전을 제일로, 향안단 파이팅!”**

객원기자 박진선



일선 정비사의  
끈질긴 도전,  
국방부 창안  
금상에 빛나다!



제19전투비행단

이/득/수 원사

전투기 실내 수분제거기 개발

일선에 근무하는 한 정비사가 F-16 전투기 조종사들의 어려움이었던 조종석 실내의 수분 누적 현상을 해소하는 장치를 개발, '보국훈장'을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제19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소속 이득수 원사.李文사는 최근 국방부에서 실시된 '국방부 창안상 시상식'에서 금상인 '보국훈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李文사가 개발한 'F-16 후방석 수분수집기'는 항공기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방울을 완전히 흡수하여 후방석 아래에 장착된 통신장비로 수분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장치이다. 수분발생의 원인은 실내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각 장치의 찬바람이 외부의 더운 기온으로 인해 물방울로 바뀌는데 있다. 1분당 40여개 가량 생기는 이 물방울들은 민감한 통신장비에 침투하여, 연간 3.5건 이상의 장애를 유발시킨다.

예산절감은 물론, 항공기 운용성 제고에도 기여

李文사가 개발한 '수분 수집기'는 불과 18만원의 제작단가로, 결합 1건당 소요되는 550만원의 장비교체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습기로 인한 장비 부식을 방지하는 등 예산절감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울러 결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회 비행 후 45분 동안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수분제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도 F-16 조종사들은 항공기의 운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李文사의 개발을 크게 반기고 있다. 통신장비에 수분이 침투하게 되면 전·후방석 조종사간, 지상 관제요원간, 다른 임무 조종사와의 통신이 두절돼 해당 조종사는 모든 임무를 중단한 채 기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중에 있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귀와 입을 잃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 정비사의 끈질긴 도전

실제로 2000년 7월, 여러 대의 F-16기가 수

분침투로 인해 연속적인 통신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15년간 F-16 정비를 담당해 왔던李원사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결심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러한 결함에 대해 F-16 제작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社도 수분을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李원사는 “수분을 외부로 방출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착안,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설계와 지상실험 등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려, 2003년 마침내 ‘수분수집기’가 탄생했다.

### 해결책은 ‘콜럼버스의 달걀’

제작사조차 풀지 못한 F-16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것에 대해,李원사는 “세워지지 않는 달걀은 그 원형을 깨트려서 세운 ‘콜럼버스의 달걀’ 처럼, 배출 구멍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니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치의 작동원리는 공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종석 내에 별도로 설치된 호스를 통해 물방울을 스펀지같은 흡착포에 강제로 모아두는 것이다.

개발 후 그 사용 효과가 상부에 정식 건의된 결과, 현재 공군의 모든 F-16은 본 장치를 장착하게 되었으며, 이후 해당 결함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성과를 창출시켰다.

###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원사는 개발과정에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부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항공기 정비는 우리 손으로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원고정리 편집실

이 장치의 작동 원리는 공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종석 내에 별도로 설치된 호스를 통해 물방울을 스펀지같은 흡착포에 강제로 모아두는 것이다.



수분수집기를 전투기 내부에 장착한 모습



임무 조종사에게 수분 수집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원사



국방부 창안상 시상식 장면



# 전장에서 달성돼

## 더 빛나는 기록

이라크 파병 이해원 중령  
개인 무사고 비행  
6,000시간 달성

### 이역만리 이라크 상공에서의 쾌거

쿠웨이트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알리 알 살렘 기지.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수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다이만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2월 16일 저녁(현지 시간), 기지 내 항공기 주기장 한 쪽에서 무리 지어 활주로 상공을 쳐다보는 장병들의 표정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겹친다. 잠시 후 기지 동쪽 하늘에서 나타난 C-130 수송기가 기지로 착륙을 시도하고, 주기장에서 있던 이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다이만 부대 비행대대장 이해원 중령(42세)이 개인 무사고 비행 6,000시간 기록을 달성하고 귀환하는 순간이다.

### ‘전장 하늘’ 비행만 7백 시간 넘어

이 비행기록은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둘레를 80바퀴 돈 것과 같다고 한다. 물론 현역 군 조종사 중 최장의 기록이다. 금번 쾌거가 더욱 빛나는 것은 대공화기의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이라크 전장에서 달성된 기록이기 때문. 지난 해 10월 다이만 부대 비행대대장으로 이곳 쿠웨이트에 온李宗령은 전장 공수 임무에 늘 앞장서왔다. 지역 내 위협등급이 가장 높은 바그다드 공수 임무도 최초로 수행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윤광웅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등 주요 인사

들의 이라크 파병 부대 격려 방문 시에도 조종간을 잡았다.

李宗령의 해외 파병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걸프전(1992)에 수송기 조종사로 참전했고, 아프간전(2002) 파병 시에는 파병부대 작전과장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의 비행시간 중 전장 하늘을 비행한 시간만 해도 700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다이만 부대가 이라크전 파병 후 단 10일 만에 공수작전을 본격 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역전 용사’인 그의 풍부한 전장경험과 철저한 사전준비에 힘입은 바 크다.

### 가장 많은 준비를 하는 조종사

1985년 1월, 비행훈련에 들어선 이래 20년 1개월 동안李宗령은 늘 ‘치밀한’ 비행을 해왔다. 항공기 시동부터 임무를 마치고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그는 비행에 임한다. 대위 계급을 달고 걸프전에 참전할 때부터 늘 그래왔다. 그는 이러한 ‘치밀함’이야말로 임무완수를 보장하고 조종사를 비롯한 승무원들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6,000시간 기록에 대해 숫자상의 의미를 부여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음 임무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데에도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요”李宗



그의 비행시간 중 전장 하늘을 비행한 시간만 해도 700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다이만 부대가 이라크전 파병 후 단 10일만에 공수작전을 본격 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역전 용사'인 그의 풍부한 전장경험과 철저한 사전준비에 힘입은 바 크다.

중령의 기록 수립 소감은 너무도 짧다.

지난 달 대통령이 탄 수송기를 그와 함께 조종했던 임호진 소령(34세)은 그에 대해 “가장 베테랑 조종사이면서도 임무를 앞두고 가장 많은 준비를 하는 조종사”라며, “늘 대공위협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만李중령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한다.

### 대공화기 위협 속 장거리 공수지원

실제로 다이만 부대의 주임무인 자이툰 부대 공수지원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이는 비행대대 지휘관인 그에게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서 자이툰 부대가 있는 이라크 아르빌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850Km. 그 사이에는 적대세력의 대공화기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2만ft 이상의 고고도에서 순항 비행을 할 때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항공기가 낮게 비행하게 되는 이착륙시에는 비행장 인근의 농가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휴대용 대공화기를 지닌 무장단체가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라크 무장단체들은 항공기를 겨냥한 고성능 대공화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격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수 임무 수송기는 위험

지역을 최대한 회피하여 비행한다. 그래서 아르빌 공수 임무의 실제 비행거리는 왕복 1,000Km를 상회하며, 비행시간도 4시간 여에 달한다.

이착륙시에는 위협지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고속 통과하거나 고도의 변화를 급격하게 주는 전술이착륙을 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을 위해李중령이 조종하는 공군 수송기에 탑승했을 때에도 급기동을 포함한 전술이착륙이 동일하게 행해졌다.

### 비행 외의 생활에도 늘 최선 다해

李중령은 자기계발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조종사로 살아온 20년간 비행과 맞겨진 임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가 하면, 공군대학 고급 지휘관참모과정에서는 수석 졸업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두 번의 대통령 표창, 두 번의 장관 표창 등은 그가 인생의 순간 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골프와 테니스도 수준급이지만 시와 바둑 역시 능하다고 전해진다.

李중령은 금년 10월까지 다이만 부대 비행대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후에는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으로 복귀하게 된다.☘

공군본부 대위 조 세 영

# 항공무기의 발전 전망



ABL(Anti Ballistic Laser)의 상상도

미래의 항공무기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까? 기층에서 레이저 유도무기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항공무기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고, 항공기의 발전과 더불어 항공작전의 모습과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무인전투기, 항공무장의 소형화, 레이저 무기 등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항공무기의 발전 전망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다.

## 무인항공기의 무장화

가까운 미래에 전투기가 모두 무인화 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의 무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무인항공기(UAV)는 처음에는 정찰 및 전장 감시 분야에서부터 활약하기 시작하여 점차 공격 용도로 변화하고 있다.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RQ-1 Predator 무인 전술정찰기의 공대지 미사일 탑재형이 시험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이라크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다. 미 공군에서는 RQ-4 Global Hawk 등 다른 정찰 무인항공기의 무장화도 검토하고 있다. 유인 전투기나 공격기는 승무원의 육체적 한계로 인해 공격 시 과도한 기동은 할 수 없지만, 무인항공기는 표적의 정면에서 요격하는 비행도 가능하고 공격 패턴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다른 무인항공기의 이점 중 하나는 전과(戰果) 보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공격 후에 표적 영상을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필요한 재공격을 지시하고 다른 공격기를 보낼 수도 있게 된다.

## 항공무기의 소형화

항공무장 측면에서, 최근의 공격기에 탑재된 폭탄이 소형화 및 소직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명중 정밀도를 높이고 표적 주변의 불필요한 피해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폭탄을 소형



▲ 항공기에 SDBC(소직경폭탄)을 장착하는 모습





◀ 미공군이 적의 탄도탄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ABL



화시켜 기체 내부에 탑재함으로써 스텔스 항공기 등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이유일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무장을 외부에 탑재하면 RCS가 증가되어 스텔스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F-117 이래의 스텔스기는 모두 무기 격실을 갖추고 무기를 기체에 탑재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는 큰 무기 격실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왜냐하면 무기 격실이 만들어지면 기체의 단면적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항공역학 측면에서 설계자는 격실을 장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공격 전투기(JSF)와 같은 비교적 소형인 기체조차도 공간을 활용하여 무기 격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SDB(소직경폭탄)와 같은 소형·경량의 폭탄이며, 이런 폭탄은 F-35급 공격기에 6~8발 정도 탑재할 수 있다.

소직경화의 경향은 폭탄뿐만 아니라 AAM(공대공미사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IM-120 AMRAAM으로는 표준형의 AIM-120A에 비해 소형화를 도모한 AIM-120C가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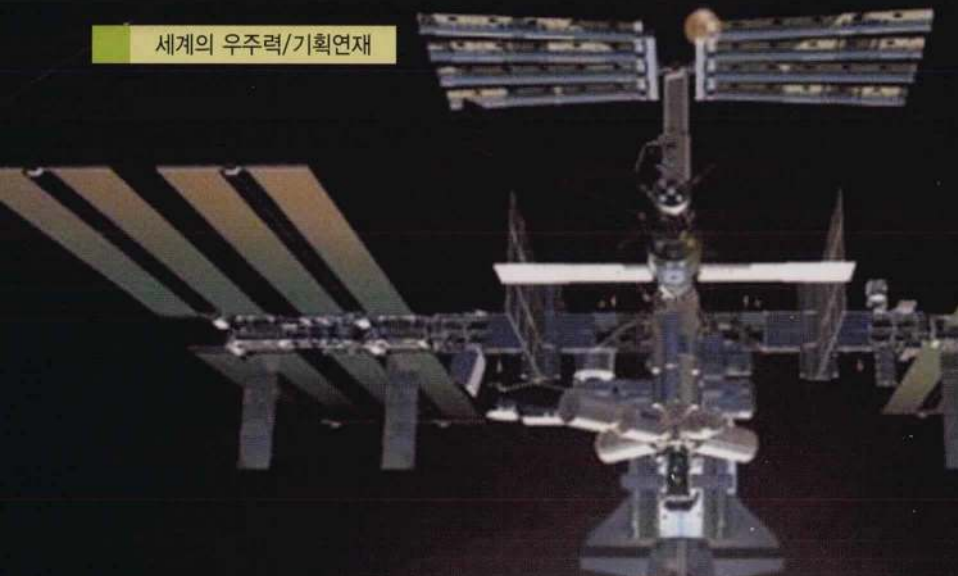
### 레이저 무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 에너지 빔에 피격되는 전투기나 우주선은 옛날

부터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만 1960년대에 처음 레이저가 등장하여 이 꿈의 무기가 당장 현실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에너지 빔 무기를 무장한 전투기는 실용화되어 있지 않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항공기나 지상을 파괴할 정도의 출력을 가진 레이저를 생산하려면 발사가 극히 크고 무겁게 되어 전투기에는 거의 탑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투기나 공격기에 탑재하고 있는 레이저는 거리 측정이나 표적 지시용으로 파괴용이 아니며,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탑재한 항공기는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YAL-1 항공기 탑재 레이저가 있다. 그러나 YAL-1 ABL은 Boeing 747-400F 화물 수송기를 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와는 약간 거리가 멀다.

미래의 공군력은 현재의 항공기보다 더욱 빠르고 기동성과 융통성이 좋으며,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초월하고, 장차 획득 및 운영유지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GPS위성을 활용한 정밀도 향상과 함께 항공기 내부에 장착가능한 소형폭탄을 개발하고, 더 장기적으로는 전투기나 공격기에 활용할 레이저무기 개발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이 연계된 최첨단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아리랑 1호 위성발사체

# 국가 우주전력과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III

## -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

### 연재순서

1. 자주적 우주전력 확보의 당위성
2. 우주개발의 세계적 동향과 우리의 우주정책
3.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이번 호에서는 우리 공군 우주력 발전의 인프  
라가 되는 대한민국의 우주전력과 이를 공군의  
우주력 증강과 어떻게 연계하여야 할지 논의해  
보고, 이를 통해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비상시, 우주 인프라의 군사적 전용

첫째, 미국을 위시한 우주선진국에서는 국가  
위기 또는 전시 중에는 군이 모든 우주자산을 활  
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는  
아직 기존의 우주인프라를 국가위기 시 어떻게  
통합·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계획이 필요하  
데, 예를 들어 국가비상시에는 무궁화통신위성  
과 아리랑 지구관측위성을 군에서 접수하여 전  
쟁 시의 무선통신망과 영상제공 매체로서 활용

하여 군 전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 위성항법체계의 구축 시급

둘째, 위성항법 수준의 정밀항법은 미래전의  
정밀타격, 정찰 및 지휘통제 자동화 등에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아직 위성을 비롯한 우  
주자산이 미미한 현재의 한국군으로서는 전시가  
되면 군 위성항법 정보 이용이 GPS 위성 보유국  
가인 미국의 의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민수용 코드만 사용 시 적의 전자전에  
매우 취약하여 사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군 전략환경에 적합한  
전용의 대체위성항법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 군용 통신위성의 확보와 활용

셋째, 군용 통신위성은 전장지휘 통제수단, 부

대간의 통신중계 및 비밀자료의 장거리 통신 등을 위해 사용된다. 최근에는 새로운 위성통신 기술, 특히 초고속 이동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국방부나 각 군에서도 기존의 운용 중인 상용위성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발사 예정인 무궁화위성 5호에 군용통신 탑재체를 탑재해 군용통신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민간 영상 데이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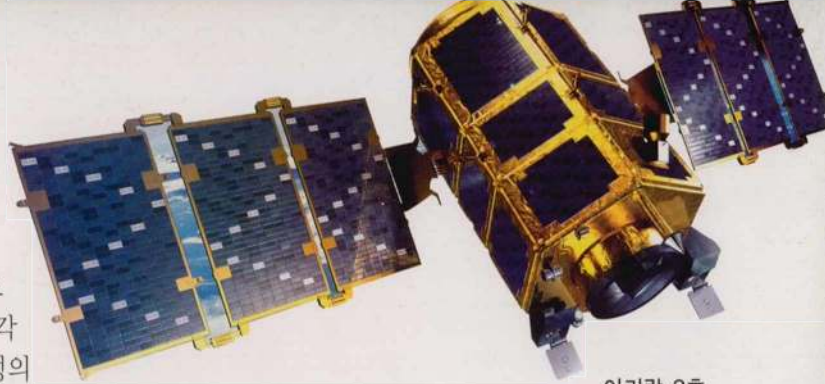
넷째, 경찰 및 감시를 위한 우주기반의 원격탐사는 거액의 개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영상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같은 실용급 위성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군에서 요구되는 군 우주시스템의 소요 개수를 줄이고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정찰위성(SAR : 합성개구레이더)사업도 위성 1기로 모든 군 정보체계를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소요 요구조건에 따른 면밀한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 협력적 자주 정보획득 체계 구축

다섯째, 군 정보체계, 특히 공·해군 정보체계 획득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정보획득 체계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협력적 자주 정보획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군 정보획득 능력으로는 완전 자주적인 정보획득체계 확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국과의 적절한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 첨단 기술개발 능력 증진

여섯째, 첨단 기술개발 능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 현재 국과연을 통해 일원화되어 있는 연구개발체계를 변경하여 각 군에서 소요되는 군 과학기술을 직접 연구개발할 수 있는



아리랑 2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 우주·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

일곱 번째, 우리 공군이 정예의 미래 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주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획득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부서 내에서 전문인력의 잦은 교체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예 : 우주 관련과)에서는 각각의 보직을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써 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공군사관학교나 공군대학과 같은 공군의 교육기관에서는 우주공학, 우주정책 등 우주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확대함으로써 미래 우주군의 기간이 되는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하겠다.

미래전은 전장의 확대가 우주로까지 확대가 될 것이며 우주의 통제가 전쟁의 승패에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획득이 가능한 체계를 먼저 획득,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를 운용한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체계를 확보하여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장영근

### 허블 우주망원경



# 3월의 공군 역사

## 주월 한국공군지원단 임무완료 후 철수(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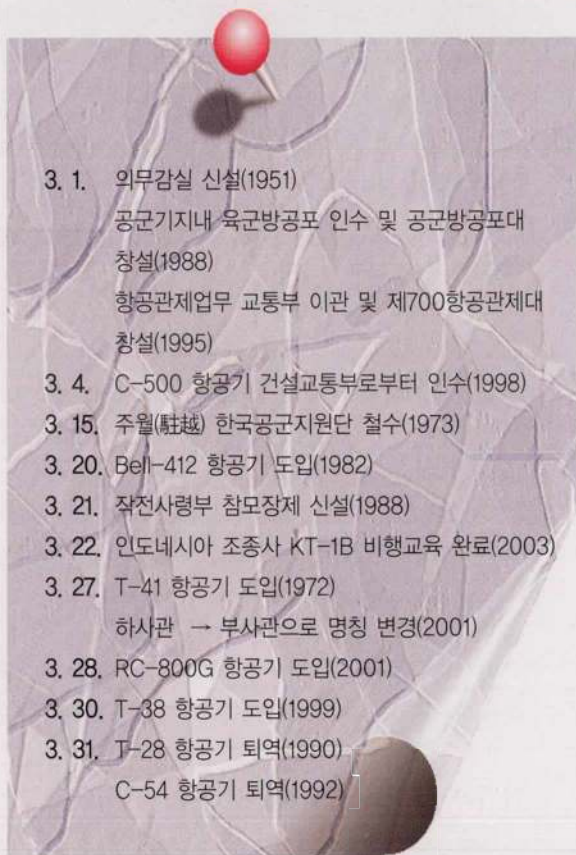
공군은 월남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1967년 7월 1일 월남의 탄손누트기지에 주월 한국군사령부 예하 직할부대로 공군지원단을 창설하였다.

공군지원단은 1967년 8월 4일, C-46 수송기로 월남 내에서의 한국군 지원을 위한 첫 공수비행을 시작으로 '73년 3월 15일 철수할 때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전술항공지원(10,669회), 전방공중통제지원(1,960회), 인원(19,800명) 및 물자(223만 톤) 수송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T-38 고등훈련기 도입(1999)

고등비행훈련에 사용 중인 F-5B 항공기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와 KTX-II (T/A-50) 훈련기 전력화 전까지의 전투조종사 양성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군은 1999년 3월 30일, 미국으로부터 T-38 항공기를 임차 도입,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다. 🇺🇸



3. 1. 의무감실 신설(1951)  
공군기지내 육군방공포 인수 및 공군방공포대 창설(1988)  
항공관제업무 교통부 이관 및 제700항공관제대 창설(1995)
3. 4. C-500 항공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수(1998)
3. 15. 주월(駐越) 한국공군지원단 철수(1973)
3. 20. Bell-412 항공기 도입(1982)
3. 21. 작전사령부 참모장제 신설(1988)
3. 22. 인도네시아 조종사 KT-1B 비행교육 완료(2003)
3. 27. T-41 항공기 도입(1972)  
하사관 → 부사관으로 명칭 변경(2001)
3. 28. RC-800G 항공기 도입(2001)
3. 30. T-38 항공기 도입(1999)
3. 31. T-28 항공기 퇴역(1990)  
C-54 항공기 퇴역(1992)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입주문인 '호남제일문'

# 전주 기행기



전라북도 전주. 그곳은 나주와 더불어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비옥한 김제와 호남평야에 이르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전주의 군사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수많은 역사의 실타래가 그곳으로부터 생겨나고 그곳에서 매듭지어졌으리라.

전주는 익산의 미륵산으로부터 전주의 모악산을 연결하는 산줄기를 아우르며 그 사이를 만경강이 흘러가는 일종의 분지형태이다. 고속도로를 타고 대둔산과 미륵산을 잇는 고개를 넘자 넓게 펼쳐진 전라도의 비옥한 농토가 시야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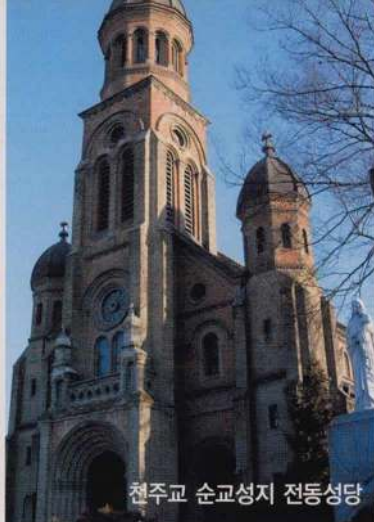
##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품은 도시

오랜 여정 끝에 다다른 전주. 도시색(都市色)

이라고 할까? 사뿐하게 내려 뺨은 기와의 곡선과 여기가 '전주' 라며 힘있게 눌러쓴 현판까지... 전주의 매력은 도시가 시작하는 톨게이트에서부터 흠뻑 묻어나고 있었다. 톨게이트를 지나 전주 시내로 향하다 보면 다시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을 만나게 되는데, 곧게 뻗은 대로 위에 우뚝 선 그 모습 앞에선 일종의 경외감마저 생겨나는 것이었다. 오른쪽으로는 2004 월드컵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한 전주구장이 세련된 모습으로 반겨주는 듯 했는데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진 듯한 모습이 전주를 한 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았다.



태조로에 위치한 전통문화 체험관



천주교 순교성지 전통성당



지역특산품인 각종 한지 공예품들



전주의 거리, 필방·전통찻집 등이

### 예향의 도시, 문화의 보물창고

전주에 들어와 처음으로 발길을 내딛은 곳은 탁 트인 풍광에 첨단 시설을 겸비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었다. 아쉽게 시기를 맞추진 못했지만 미리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방문한다면 영혼의 풍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근에는 전주동물원이 위치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다니기에도 좋다(단, 겨울엔 관람 가능한 동물이 적다는 것에 유의할 것).

전주는 예향의 도시답게 매년 전주국제영화제(4월말~5월초), 전주대사습놀이(매년 5월초), 전주종이문화축제(5월초), 풍남제(4월말~5월초), 전주 세계 소리축제, 한옥마을 김장축제(11월중순~12월중순), 연꽃예술제(7월중순 연꽃개화기), 전주약령시제전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연중 계획되어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해둔다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험의 방문이 될 듯 싶다.

이제 전주 시내로 들어가 보자. 시내에 들어서면 영화 거리, 책방 거리, 젊음의 거리 등 다양한 주제의 거리들이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여기에 시에서 조성한 문화의 길, 역사의 길, 자연의 길이 더해져, 시내 전체가 테마공원화된 듯한 인상을 준다. 영화의 거리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젊음의 거리에서 허기를 채운 다음, 마지막으로 책방의 거리에 들러 오래된 책의 향기에 파묻혀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으리라. 특히, 역사가 오래된 현책방 거리에서는 어렵지 않게 추억 속의 보물들을 낚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둘러볼 것.

###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전주

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꽃심'이라는 표현으로 전주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꽃심'이란 싹을 틔워내는 힘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왕재(王才)를 배출한 힘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전주가 조선왕조의 풍패지향(豊沛之鄉)으로서 조선왕조 500년의 명맥과 문화유산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정유재란의 의병항쟁이나 동학농민운동의 민중봉기 등 피어난 항쟁이 일어난 역사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시내를 가로질러 한옥마을로 들어서다 보면 전주의 명물 중 하나인 '전동성당'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이곳은 한국 카톨릭의 초기 역사를 웅변해주는 건물인 동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순교자를 배출한 성지이기도 하다. 전주를 감싸고 있는 모악산은 증산교와 백련교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종교의 본산이거니와 무속신앙의 모태로 불리는 곳으로 지금도 거리 곳곳에는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시설을 볼 수가 있다.

### 전통의 재발견, 전주 한옥마을

“백제가 망하고, 후백제가 망하고, 고려에는 사무치는 미움을 골수에 받은 땅, 마한의 옛터. 이 전라도 한세상에 저항을 하며 풍류에 몸을 신는 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심진학 선생의 말처럼 전주(全州)는 신라 경덕왕 16년(757) 전국을 9주5소경 체제로 개편하면서 한화정책(韓化政策)의 일환으로 완산주에서 개명된 것이다.

이런 전주의 도시적 상징인 '저항과 풍류'는 지금에 이르러서 천년고도와 예향의 이미지로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지금도 한옥마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의 계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옥마을의 생활체험관, 전통술 박물관, 공예품전시관/명품관, 한방문화센터 등을 돌아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전통이 현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문화를 시대와 무관하게 보존만 한다면 그것은 식물인간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 속을 거닐며 내가 본 것은 전통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였다.

태조 이성계가 대풍가(大風歌)를 불러 창업의 뜻을 밝혔다는 오목대에 올라보니 전주시내가 한 눈 안에 들어왔다. 시내 곳곳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라 있는 건설크레인과 새로이 지어지는 한옥마을 기와집을 보고 있노라니 이젠 더 이상 한옥마을이 고층빌딩에 포위 당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숨쉬고 있다는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올랐다.

### 비빔밥의 문화, 전주

전주의 시가(市街)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거대한 그릇 위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버무려 놓은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 그리 크지 않은 시가지가 금융과 영화거리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교육과 문화, 서로는 산업, 남으로는 역

사, 동으로는 종교를 아우르는 모습이 다양함을 조화시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비빔밥의 형상처럼 느껴진 것은 나만의 착각은 아닐 것이다.

그런 느낌 때문이었을까? 여정의 끝, 오목대를 내려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바로 전주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한식전문점이었다. 예로부터 평양냉면, 개성탕반과 함께 조선 3대 음식에 속했던 전주비빔밥. 이제 전국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전주비빔밥이지만, 그래도 전주에 왔다면 '원조' 전주비빔밥을 꼭 한번 먹어보길 바란다. 30여 가지가 넘는 재료와 복잡한 조리과정, 지극한 정성이 더해져 맛은 물론 그 모양에 있어서도 '원조'만의 완전성과 품격을 담고 있다.

전주를 나오며 다시 만난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 그 앞에 멈춰 잠시 여정을 되돌아본다. 모습에서나 의미에서나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 일주문 사이를 오가며 난 전주를 보았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한국 전통도시의 미래를 발견했다. ♣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대위(진) 손정환



오목대에서 내려다 본 전주시내



전주의 자랑 '전주 비빔밥' (장소협찬 : 「고궁」)



# 죽음 앞에 선 칸트의 선택

구성 : 김영실  
그림 : 김영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어린 시절부터 심장질환과 호흡기 장애로 자주 앓아눕곤 했습니다. 그러나 갖은 병치레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좋은 수석을 차지할 만큼 성적이 우수했으며, 한번 결심한 일은 어떻게든 해내고야 마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칸트의 부모님은 병약한 아들에게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은 칸트가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대학교수가 된 칸트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일어나 강의 준비를 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귀가해 식사를 하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걸어다니는 시계'라고 부르며, 그의 행동을 보고 시간을 추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애주가였지만 술도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언제나 그만큼만 마셨습니다. 그런 칸트가 들어서 병석에 누웠을 때, 의사는 그가 언제 운명할지 모르니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칸트의 가족들은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술을 마시게 해주기로 하고는, 그 동안 병 때문에 마시지 못했던 포도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칸트에게 한 잔 그득 따라주며 마음껏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 잔을 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입법부와 대의제(代議制)



국가의 권력 구조 중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입법부인지 행정부인지 여부,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는 분위기, 법원의 판단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는 태도 등등은 민주주의는 발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식은 아직도 이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권력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며 이는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에 전면 개정되어 공포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권력 기구에 대한 이해와 그 바탕은 모두 1987년 헌법을 기초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해들은 이야기나 신문 기사 등을 보고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대의제의 탄생

입법부를 이루는 기본 원리는 대의제이다. 이는 2000년이 넘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견해 낸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방법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아주 옛날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하자. 마을이 발전할수록 도로개설이라든지 상수도 설치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은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결국 사람들은 마을 대표라는 것을 뽑게 되고, 신의 뜻을 받들어 일을 결정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살아남은 사람을 대표로 뽑고 이에 복종한다. 그런데 이 마을 대표는 제멋대로다. 마을 처녀 중 마음이 들면 자

기 부인으로 삼아버리고,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러도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기 일쑤다. 마을의 의사 결정 문제도 다 자기 마음대로이다. 조금도 마을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 대의제의 변천과 발전

마을 사람들은 참다 참다 결국 반란을 일으켜 대표를 마을 밖으로 쫓아버리고, 앞으로는 모든 일의 결정을 공평하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하기로 한다. 100명이 모여 회의를 한다. 그런데 한 번 회의를 시작하면 안건 설명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농사도 짓고 일도 해야 하는데, 회의하느라고 일도 못한다. 사람들은 다시 모여 대표를 여러 명 뽑아 어느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자고 합의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 글을 읽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각자 자신의 대표를 내기로 한다. 각 그룹을 대표하는 5명이 대표로 선출되고 이제 사람들은 안심을 한다. 그런데 5명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도로 개설을 위해 회의를 하면 농사를 짓는 이들은 자신들의 농로를 내려고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외부와의 교역을 위한 길을 만들자고 하고, 글을 읽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대표 또한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를 알면 자신을 뽑아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다.

## 대의제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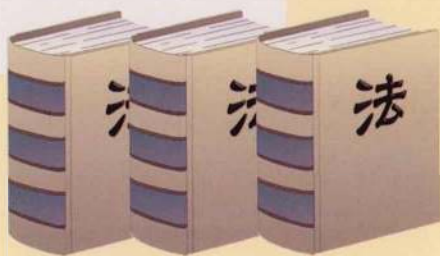
회의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된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은 대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출하되, 대표는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 뽑아준 사람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마을 전체를 위해 일을 수행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마을을 위한 행위로 보자는 데 합의하였다. 대표들이 모여 결정한 일은 설사 자신의 이익에 상반되더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

이것이 바로 대의제의 원리이고,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대의제의 원리는 정착되어 왔으며, 우리 헌법은 대의제의 원리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입법부는 대의제의 원리에 기속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의 의사를 대표하여서는 안 되며, 거꾸로 그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이 뽑아준 의원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한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즉 국민 전체를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에서 결정된 일은 국민의 의사와 반대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라도 국민이 그렇게 결정한 일로 보자는 것이다.

## 대의제의 보완책, 지방자치제도

한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은 자신들



의 지역을 위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 헌법상의 대의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지방의원은 지역을 위해 일할 때 국가가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고 우리 입헌자들은 결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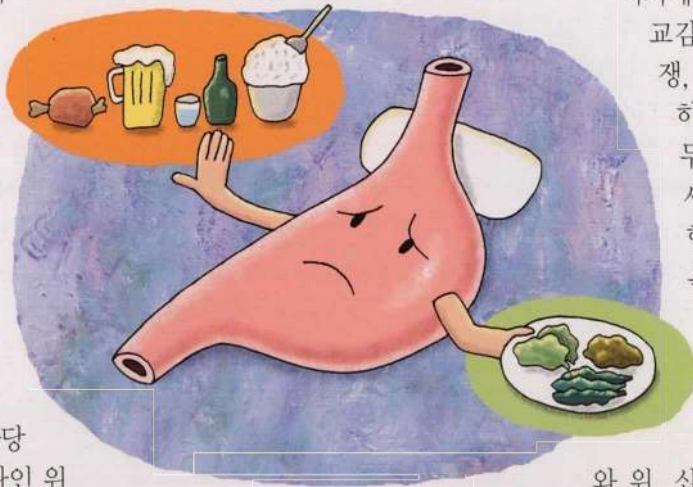
따라서 국회를 비판할 때 국가적인 이익을 위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특정집단이나 지역 등을 대표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런 비난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리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제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믿음을 주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사람을 뽑았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일은 우리의 의사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지귀연



# 기능성 위장장애

우리의 몸은 매일 혹사를 당한다. 뇌는 계속해서 사고하면서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4분의 1 가량을 소비하고, 심장은 1분에 60여회 씩, 평생 20억 번이나 펌프질을 한다. 우리의 위장은 시도 때도 없이 먹어대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제대로 쉴 틈이 없다.



오늘은 평생 혹사당하는 장기 중의 하나인 위장에서 생기는 기능성 장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체했다'거나 '배탈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증상 중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는데 기능성 위장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중요한 점은 '결코 암으로 진행하거나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다만 자주, 그리고 성가시게 괴롭힐 뿐.

## 위장(胃腸)이란?

위장은 자율 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아주 세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흔히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며, 손에

땀이 나는 것 등을 떠올리는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제어하는 것도 이 자율신경계에 의한다.

여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경쟁, 보완하면서 작용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신경계의 세밀한 조화와 균형이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데에 있다.

위장은 식도와 위, 십이지장까지를 상부 위장관이라 하고, 소장, 대장 이하를(將軍이 아님!) 하부 위장관이라 부르며 각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 상부 위장관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속쓰림, 소화장애, 구역, 구토 등이 있고, 하부 위장관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설사, 변비, 가스 차는 것 등이 있다.

## 기능성 위장장애 VS 경고성 징후

기능성 위장장애란 다른 특별한 질병, 가령 암이나 궤양, 감염 등이 없으면서 위장에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여러 가지 검사상 특이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 쓰는 용어이다. 가령, 똑같이

기능성 위장장애의 대표적인 것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이 병은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 불규칙한 식사, 음주,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의해 악화되는 데, 흔히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다가 화장실에 가서 무른 변을 본 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다가도 갑자기 변비가 생겨 며칠을 고생하다가 다시 무른 변을 보는 날들이 반복되기도 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은 위암으로, 다른 한 사람은 기능성 위장장애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실제 병원에서는 증상 한 가지만으로 모든 환자를 정밀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질병을 시사하는 '경고성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는 먼저 약을 먹거나 생활습관 조절을 시도해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의 경우는 검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경우인데, 최근에 열이나 체중 감소가 지속되거나 통증으로 인해 자다가 잠을 깨는 경우, 점점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 고령에 증상이 시작된 경우, 치질이 없는데도 변이 검붉은 경우 등에는 면밀한 병력 조사와 진찰 후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 대표적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능성 위장 장애의 대표적인 것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이 병은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 불규칙한 식사, 음주,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의해 악화되는 데, 흔히 아랫배가 사르르 아프다가 화장실에 가서 무른 변을 본 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다가도 갑자기 변비가 생겨 며칠을 고생하다가 다시 무른 변을 보는 날들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 병으로 통증이 심해 잠에서 깨는 경우는 드물며 체중감소도 뚜렷하지 않다. 증상의 변화 폭도 큰 편으로 자신의 평소 생활 습관을 잘 떠올려보면 어떤 요인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암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이 병으로 죽는 경우도 없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 기능성 위장장애에서 벗어나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능성 위장장애는 개인의 심리와 식사 습관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조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 이완, 스트레칭 등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을 기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동시에 과식을 피하고(특히 자기 전) 기름진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곡류와 야채, 해조류를 먹는 것이 좋다. 한편 술이나 카페인인 많은 음료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우유를 먹고 증상이 생기는 사람은 그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과 더불어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약물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서양보다 상부 위장관 증상 - 즉, 체하거나 속이 쓰리고 구역질이 나는 것 - 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는 불규칙한 식사와 밥을 빨리 먹는 습관, 잦은 음주 등이 원인이 되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진단받은 이후에는 투약과 더불어 식생활 습관 개선과 운동, 스트레스 조절 등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④

제3방광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이철민



## 제38전투비행전대 유술 동아리 『니온 벨리』

한국에서도 점점 열기를 더해 가는 이종격투기. 이종격투경기를 한두 번이라도 시청한 사람이라면 브라질 유술(주짓수, Brazilian jiu-jitsu)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질 유술은 다양한 격투무술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기술들이 많은 무술로 꼽힌다. 특히, 최근 붐이 일고 있는 각종 이종격투경기 리그에서 몇 번이나 챔피언을 배출함으로써 브라질 유술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저변확대에 있어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유술 동아리 탄생! 그 이름은 『니온 벨리』

지난 2004년, 이종격투기 방송이 점차 인기를 얻어감과 동시에, 이를 통해 소개된 브라질 유술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져 갔다. 특히 브라질 유술 특유의 화려한 공격기술들은 많은 장병들의 마음을 매혹시켰다. 피끓는 젊은 장병들, 이것을 어찌 눈으로만 즐겨워하겠는가! 하

나 둘씩, TV에서 보던 기술들을 연습해 보는 장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정식적인 모임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 유술 동아리 『니온 벨리』이다. 『니온 벨리(Knee On Belly)』를 우리말로 하면 “배 위의 무릎”이라는 뜻이다. 우리말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것은 브라질 유술에 등장하는 공격기술의 이름이라고 한다.

###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

사실, 아직 정식 도장이나 유술협회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한국에서 브라질 유술을 연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38전대 유술 동아리 『니온 벨리』의 결성과 현재에 이르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은 난항의 연속이었다고. 하지만,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각종 무술을 합쳐 공인 5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리 반장 이영민 중사의

의지와 열정만큼은 남달랐다. 초창기 시절, 이 중사는 '브라질 유술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하나 하나씩 기술을 익혀 나갔고, 익힌 기술들은 다시 동아리 회원들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실력을 쌓은 장병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회원들 간의 상호 기술전수나 연구, 대련 등이 가능해졌고, 동아리 활동은 비로소 제 궤도를 찾게 되었다.

### 한·미 유대강화에도 한 몫

브라질 유술 기술을 익힌 장병들은 체격이 작은 장병들이더라도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장병들을 기술로 제압할 수 있었다. 이것은 브라질 유술이 태권도나 권투처럼 상대를 차고 때리는 스트라이킹(Striking) 계열이 아니라 유도나 레슬링처럼 잡고 조르는 기술중심의 그레플링 계열 무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모습에 매료되어 『니온 벨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장병들이 차츰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는 11명의 정식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도 가장 관심 받는 동아리로 거듭났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부대내 함께 주둔하고 있는 美8전투비행단 브라질 유술 동아리원들과의 교류를 시작함으로써 한·미 장병들간 유대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의 단련

브라질 유술 동아리는 접하기 어렵고 독특하며, 실전에 유용한 동시에, 체력까지 단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과 실용을 선호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동아리 반장 이영민 중사는 "브라질 유술은 굉장히 실전적인 격투무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아리 반원들 성격이 거칠거나 호전적인 것은 절대 아니죠(웃음^^). 건전한 대련을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몸도 더욱 민첩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체육 동아리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의 단련인 거죠."라며 격투무술 동아리에 대한 선입견을 일소시킨다.

38전대 브라질 유술 동아리 『니온 벨리』는 현재, 美공군 유술 동아리와의 교류확대, 민간 유술 동아리와의 친선시합, 유명 유술강사 초빙 등 많은 계획들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38전대 체육관을 울리는 『니온 벨리』 반원들의 힘찬 함성. 그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

제38전투비행전대 대위 윤형노



## 봄의 길목에 선 초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침묵, 그리고 고독과의 싸움...

제1-4경계 초소. 오늘밤 나의 근무지다. 이제는 제법 봄내음이 나는 바람이 불고 있지만, 계단을 타고 올라간 초소엔 아직 쌀쌀한 감이 돌았다.

### 지휘관·참모들의 초병임무 체험

지난 2월말, 제8전투비행단(이하 8전비) 지휘관·참모 전원은 기지내 경계초소에 각각 배치되어 검문은 물론 담당지역 경계업무 등의 초병 임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초소근무체험은 다수의 병사들을 지휘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초병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여 상관과 부하 사이의 간격을 좀더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일체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경계초소 망루에 서서

먼저, 3소대에 배속되어 소대장으로부터 경계 교육수칙 교육을 받았다. 23년 전 생도시절의 불침번 근무가 떠오르면서 감회에 젖어둠도 잠시, 방한복과 야간 관측장비를 지급받고 1-4초소 망루에 오르니, 이곳이 최전방 비행단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새삼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같이 근무를 서게 된

김이병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김이병의 부모님이야기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새 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어느새 간부와 병사의 대화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같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게 되었으며 김이병과의 대화를 통해 병사들의 많은 고충을 듣게 되었다.

### 병사들의 힘든 점 알게 돼

초병 근무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쉽게 피로해지고, 주야 구분 없이 근무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독하고 힘든 근무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8전비 경계병들은 나름의 자부심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겨내고 있었다.

또한, 야간관측장비 사용법을 익힌 후 실제 야간관측을 해보았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낮과 같이 적의 침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총에 부착된 야간표적 지시기를 통하여 야간에도 표적을 놓치지 않아 아무리 은밀하게 침투하는 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전에 발견하여 철저하게 기지경계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리고 초소근무체험을 통하여 초병의 애로사항을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김이병, 수고가 많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전화는 드렸니?”



등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친아버지 같은 푸근함으로 간부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려 노력하였다.

힘들었던 초소근무 체험은 김이병과의 대화 속에 순식간에 지나갔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필승,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김이병의 인사에 근무를 서기 전과는 다른 친근함을 느꼈다.

### 병사와 간부 사이의 벽을 없앤다.

이번 초소체험 근무를 통해 음지에서 묵묵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병사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였고, 그들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병사와 간부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겨울부터 열조끼를 초병들에게 나눠줘 보다 따뜻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는 소식과 비행단 전 간부까지 초소근무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병사들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갖는다는 소식은 초소근무를 체험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갑고, 초병들에게는 사기를 충전시키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어 간부와 병사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졌으면 한다. 부대화합이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다시 한 번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병들과 8비 장병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파이팅’을 외쳐본다. ⊕

제8전투비행단 중령 공 원 대



## 3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2005 아시아 미술展]  
김종수 「무연의 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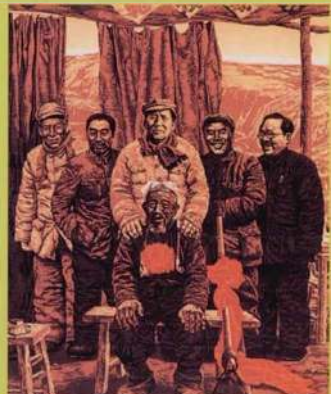
[리메이크 코리아展] 김지혜 「Luxurious life」



[동북아 3국 현대목판화展]  
황선웅(한국) 「중양암」



[동북아 3국 현대목판화展]  
모리무라(일본) 「금각사」



[동북아 3국 현대목판화展]  
차리지옌(중국) 「모범」

### 2005 아시아 미술展

아직 우리에게 아시아 미술은 서구 미술보다 낫설다. 지구의 같은 편에 있는 국가들로서 지리적 동류성은 있으나 문화적 이질성과 민족적 고유함을 지닌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인기도나 지명도에 치중한 나머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대다수 '일반' 작가들의 고민과 정서를 살필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없었다.

「2005 아시아 미술展」은 바로 이런 현실에 대

한 반동(反動)이다.

이번 전시는 특정나라에 국한된 전시가 아닌 한·중·일을 포함한 필리핀, 대만,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전 지역 총 400여명 작가들이 동양화와 서양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아시아인들간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상황에 관한 공감과 이해를 도모하고, 공생으로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함께, 전업작가 개개인의 고유성과 예술관에 바탕을 두고 평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진 전시가 되었다.

한번쯤은 고정된 시스템에서 이탈한 순수한

전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틀에 박히고 상업성에 민감한 '메이커'가 아닌, 순수하고 역동적인 아시아를 느껴보고 싶지 않은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관에서 3월 15일까지, 무료관람  
문의 : 02-732-9820(www.sejongpac.or.kr)

### 리메이크 코리아(REMAKE COREA)展

시간과 시간의 만남, 극과 극의 대면, 과거와 현대의 교차점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의 그네들과 현재의 우리들이 가진 동질감. 거창하지만 REMAKE COREA展이 바로 그렇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 미술에 등장하는 대표적 도상들을 차용·반복하여 현대의 인식구조를 통해 재해석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기법이 바로 리메이크.

리메이크란 원작을 차용하여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영화나 음악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본 만화를 영화 <올드 보이>로 리메이크한 것처럼 기존의 작품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 형식과 내용을 새로운 문맥에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교차하고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이 넘나들며 고정된 정체성이 와해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맥락이 리메이크의 과정에 개입, 우리의 전통산수화나 인물풍속화, 고분벽화 등을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원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를 현재의 시각에서 다시 만들어내고 회화, 설치, 비디오영상 등의 과정이 그 의미를 배가시킨다.

전통 산수화의 조형성과 내용은 디지털 과정으로 대체되어 새로운 디지털 산수화로 변용되기도 하고, 조선시대 대중의 그림이었던 민화는 21세기 현대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대중소비사회의 기호로 변형되기도 한다.

서울 강남구 'SPACE C'에서 3월 26일까지, 관람요금 2,000원  
문의 : 02-547-9177(www.spacec.co.kr)

### 동북아 3국 현대목판화展

오래전, 미술은 종교적 도상을 다룸으로써 대중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 다량복제가 가능한 판화는 이러한 종교적 목적을 실행하는데 기여하기도 했고, 유명 고전 회화를 복제하여 대중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대량생산·복제가 가능하다는 판화의 장점이 오히려 판화를 다른 미술장르보다 평가절하 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판화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격, 즉 작가의 의도를 집약해서 단순화하고, 판을 깔고, 물감을 문혀 찍어내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미술의 기본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업일 수 있다.

이번 현대목판화전은 한·중·일 각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작가 20명과 그들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각 나라 고유의 전통적 성격을 재해석하여 현대화하고 특성화시킨 것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선동매체였다는 특징답게 리얼리즘 미학으로서의 전달력이 강한 중국의 목판, 정교하고 화려한 형상·질감·색감을 자랑하는 일본의 목판, 정감어린 시선, 여백과 집중의 조화가 두드러진 한국의 목판에 이르기까지, 각국 작품들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도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한편, 이 전시에서는 특별전으로 '한국의 고판화(古版畵) 전을 마련, 반야바라밀경(보물 제877호)나 묘법연화경(보물 제1306호) 등 보물을 포함해, 평소에 일반에 공개되기 힘든 귀중한 유물들이 한 자리에 선보인다. Ⓡ

서울 종로구 일민 미술관에서 4월 3일까지  
관람요금 : 일반 3,000원, 학생 2,000원  
문의 : 02-2020-2055(www.ilmin.org)

객원기자 지인홍

# 칭찬합시다



“그 친구에 대해 설명을 해봐”

“음... 말이지...

착하고, 편안하고... 흠...또..에..또...”

“그리고?”

“...”

**당**

황스러웠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근자의 일이다.

더 이상을 소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내가 그만큼밖에 관심이 없었나 싶기도 했고, 누군가를 소개할 때 ‘사람됨’에 대한 것 외에 또 무엇을 설명해 주어야 하나 싶어 화도 났고.

그러면서 문득,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그 역시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무

엇보다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를 뜨겁게 만들었다.

## 타인에 대한 비난과 잇따른 후회

변명을 조금 하자면, 최근 나는 친구와 함께 살면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었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던 터,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가 되면 으레 ‘요즘 고민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친구와의 동거’였고, 함께 지내면서 그 친구는 이렇더라, 혹은 그 친구의 이런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식으로 얇은 비난의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힐난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의 말미에는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를 던지지만, 이내 후회가 시작된다.

내가 왜 그 이야길 했을까?... 오히려 내 얼굴의 침 뱉기가 되어서라기보다는 제3자에게 내 친구라는 낯선 이에 대한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게다가 그다지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넣게 만들었던 것이다.

## 잘못 기울어진 마음의 저울

게다가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힐난하게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 친구는 정말로 그렇게 비난받아야 했나? 오히려 좋은 면들, 칭찬해야 하는 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색안경을 쓰고 비난의 꼬투리만을 끄집어 낸 것은 아닐까?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는 이에게 자신감을 준다.  
 바보도 천재로 만드는 힘,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바로 칭찬인 것이다.  
 온달을 장군으로 만든 것도  
 바로 평강공주의 애정 어린  
 칭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큰 소리로 칭찬하고, 작은 소리로 비난하라’는 러시아의 격언과 달리, 나는 큰 소리로 칭찬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부끄럽게도 큰 소리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칭찬과 비난은 상반된 위치에 있어 칭찬의 무게가 커지면 비난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나는, 한쪽 바구니에 ‘비난’이라는 추만 잔뜩 담아놓은 것이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 칭찬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준다.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는 이에게 자신감을 준다. 바보도 천재로 만드는 힘,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바로 칭찬인 것이다. 온달을 장군으로 만든 것도 바로 평강공주의 애정 어린 칭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게다가 칭찬을 하는 이에게도 마음을 따뜻하고 넓어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음이 아니던가.

물론, 속임수가 있는 거짓으로 하는 칭찬, 사탕발림 같은 순간적 충동만을 주는 칭찬, 알맹이 없고 실속 없는 칭찬 등은 사양한다. 그런 칭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음일 뿐이다.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다. 주인공이, 자기가 모르는 3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은 3명은 또 각각 다른 3명에게 도움을 주

는... 그래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가 3명, 9명, 27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서로=모두’가 된다는 내용의 영화.

이 영화가 문득 떠오른 것은, 칭찬을 여기에 대입시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일 게다.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칭찬 한마디에, 칭찬하는 이도 기분 좋고, 칭찬을 받는 이도 기분이 좋을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루에 세 번, 아니, 한달에 세 번이라도 가까운 이에게 진심의 칭찬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

“열심히 사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방송작가 함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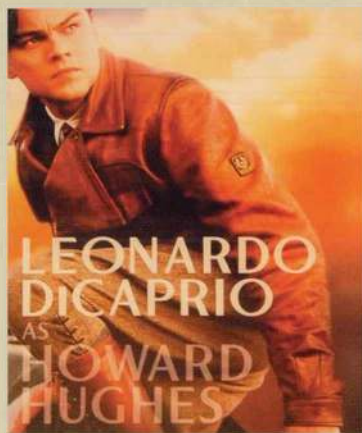


-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하라
-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가끔씩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라

- 칭찬의 10계명(켄 블랜차드)

백만장자의 영광과 고독

## 에비에이터(Aviator)



**20**세기 최초의 백만 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비행사이자 영화 제작자였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비행사들의 영웅담 <지옥의 천사들>(1930)을 찍으면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제작비인 380만 달러를 3년 동안 쏟아 부었다. 실감나는 비행 장면을 찍기 위해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타고 촬영했으며, '풍만한 여자 유방 같은' 구름을 기다리기 위해 6개월을 탕진했으며, 당시 도입된 유성영화로 탈바꿈시키려고 그렇게 찍은 필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를 바꾸었고, 날개가 축구장만한 엄청난 비행기를 만들기도 했다. 부자인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무모한 일들에 돈과 정열을 쏟아 부었다.

## 대배우 디카프리오, 준비된 감독 스콜세지

우선 놀라운 것은 종잡을 수 없는 하워드 휴즈의 기행과 공포를 연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존재감이다. <타이타닉>을 촬영할 당시 하

워드 휴즈에 푹 빠져 <에비에이터>에 제작자로도 참여한 디카프리오의 나이 서른에 가능성 있는 청춘스타에서 일약 대배우로 도약했다. 2005년 골든글로브는 그에게 드라마 부문 최고 남자 연기상을 수여했고, 2005년 아카데미 시상식도 남자연기상을 비롯, 무려 11개 부문에 <에비에이터>를 초대했다.

현대 미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마틴 스콜세지는 지금까지 전기 영화를 적지 않게 찍었다. 대표작 <분노의 주먹>은 세계 라이트급 챔피언 제이크 라모타의 일대기를 다룬 것이며 달라이라마의 생애에 존경을 바친 <쿤둔>도 연출했다.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필생의 역작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도 넓게 보면 이 범주에 속한다. 전기 영화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스콜세지의 일관된 작품 경향을 반영했다. 곧 죄와 수난, 구원과 부활의 이야기였다.



## 20세기의 미다스, 하워드 휴즈

하워드 휴즈는 스콜세지 영화의 종래 주인공들과 다르다. 휴즈는 초기 대표작 <비열한 거리>나 <좋은 친구들>, <갱스 오브 뉴욕>에서처럼 천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폭력과 강박에 시달리는 건달이 아니다. <카지노>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제왕이긴 하나 음지보다는 합법적인 양지에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백만장자다. 청년 시절에 이미 막대한 부를 상속받아 평생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만 했던 모험가이기도 하다. 어른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제일 재미난 영화를 만들고 가장 큰 부자가 되겠다는 소년 휴즈의 야망은 청년 시절에 이미 다 이뤄진다. 그는 금기를 깨뜨리는 영화 제작자였으며 가장 멀리 나는 비행기와 가장 큰 비행기를 제작하는 항공 운항사의 경영주이자 그 자신이 손수 비행을 즐기는 조종사였다. 휴즈는 한시도 멈춰 있지 않는다. 늘 앞으로 나아가고 자기가 속한 사회 시스템의 규칙을 깨뜨린다. 사람들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손을 지닌 그에게 반해 꼬여들고 여자들도 모여든다.

###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자의 강박

이제, 영화 제작자로 성공한 휴즈의 삶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서 비행기의 속도와 크기와 신기술에 집착한 휴즈의 항공사 경영주로서의 모험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스콜세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자의 강박을 다룬다. 어린 시절 자신을 목욕시켜 주던 어머니로부터 바깥 세상에서 감염되는 세균의 공포를 전해 들었던 휴즈는 평생 바깥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다. 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에게 서류를 전해 줄 때도 항상 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야 했다. 휴즈는 30분마다 손을 물로 씻었으며 이 증상은 그가 건설한 왕국에 누군가가 침입하려 든다고 느낄 때 더 심해진다.

스콜세지는 이렇게 남들에게는 심상한 일을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느꼈던 휴즈의 강박을 시

청각적으로 세세하게 다룬다. 휴즈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은 자신의 거실과 시사실과 비행 조종석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성채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 성채에서 나올 때 그는 늘 아슬아슬한 위험과 직면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벗어났을 때 어린애처럼 연약해지는 인물이다. 그런 휴즈가 택한 대안은 자신의 왕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거실을 세균 감염 안전 지역과 위험 지역으로 나누고 안전 지역에선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던 휴즈는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모는 비행사의 역할에서 물러났을 때 지상에서는 한 평도 되지 않는 안전 지역에 갇힌 죄수 같은 심정으로 사는 모순된 삶을 자임했다.

결국 휴즈는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정복할 수 없었던 자의 공포를 품고 있다. 자신의 항공사 TWA가 경쟁사 팬암의 공작으로 위기에 처하고 상원 청문회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휴즈는 자신의 시사실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다. 집사가 갖다 주는 우유를 먹고 그 우유 병에 오줌을 누면서 휴즈는 시사실에서 버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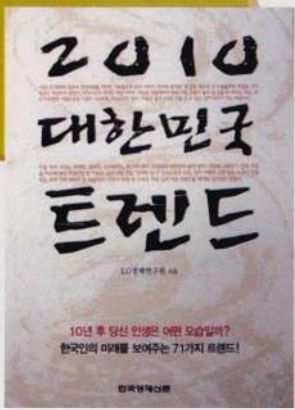
자신만의 공간에서 휴즈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의 모습이다. 수염이 덩수룩하게 자라고 씻지 않아 해괴한 물골을 한 휴즈의 모습은 전진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신의 성채에서 안전하게 퇴각했던 휴즈의 정체를 드러낸다. ⊕



영화평론가 김지훈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불과 '5년 뒤'의 대한민국은 80년대에서 바라본 21세기만큼이나 신기하고 흥미진진하다. 세상은 갈수록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다.

# 2010 대한민국 트렌드



- LG경제연구원 지음 -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던 1980년대, 소년들이 즐겨보던 만화잡지나 월간 과학지에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럴 것이다'라는 각종 비전이 난무했었다. 그 중 화상전화 같은 것은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고, 로봇 가정부나 해저도시의 여전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과 같은 당시로서는 개념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매체가 등장해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다.

## 불과 5년 뒤, 세상은 크게 달라진다.

LG경제연구원이 1년간 분석 진단한 2010년 『대한민국 트렌드』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80년대 소년잡지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한편, 그만큼 정신없이 변해가는 테크놀로지 및 한국 사회 전반을 반영하기도 하는 책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1985년도에 『1990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생각해보자. 어딘가 생뚱맞지 않은가? 하지만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불

과 '5년 뒤'의 대한민국은 80년대에서 바라본 21세기만큼이나 신기하고 흥미진진하다. 세상은 갈수록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달라진다.

책은 크게 7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개인의 성향이(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소비자의 성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경영 및 국내 경제 트렌드, 더 나아가서 해외 경제 트렌드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대기업의 경제연구팀인 만큼, 주로 기술진보 및 세계경제 변화에 따른 경제지형의 변화에 각별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물론 이 책에 나온 테크놀로지들은 어디까지나 현재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고, 사회현상들 역시 선진국들에서 이미 나타난 것을 한국에서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측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디서나 쉽게 컴퓨터와 접촉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라든지, 나노기술, 중국의 부상 등은 평소 신문을 꼼꼼히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의의를 간과할 수는 없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트렌드들을(정확히는 71개의 트렌드를)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2010년 이후의 주력상품 및 경영기획, 유망직종 등을 예측하는 데에 우수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읽고 싶고, 혹은 시대의 변화를 미리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 만물이 약동하는 3월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중에서

**2** 월이 늦겨울 추위에 몸 움츠리는 지루한 기다림의 달이었다면, 3월은 따스한 햇살이 샘물같이 흐르는 새로운 희망의 달이다.

## 봄의 시작, 3월

3월은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저기압의 통과가 빈번해지는 시기로, 기온이 점차 영상으로 높아지면서 봄이 우리 가까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강수량은 평균 58mm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강설량은 평균 3cm로 감소하여 3월말부터는 산악지역을 제외하고는 눈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기온 상승과 함께, 급격한 날씨변화가 자주 일어나며 안개발생 역시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지상 및 항공작전 수행시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야외 및 사격훈련시 산불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 봄의 불청객, 황사

황사는 3월에서 4월에 가장 많이 관측되고 있다. 황사가 발생하면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시정이 악화되는데,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비행착각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비행불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제트 항공기의 엔진부분은 공기흡입시 황사입자가 같이 유입되어 내부기관의 마찰증가로 인한 피스톤의 마모가 생길 수 있으며,

정밀측정장비의 정확도가 감소하기도 한다.

기나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 5일이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만물이 약동하기 시작한다는 춘분(春分)이 20일이다.

희망의 3월, 이 즈음이면 문뜬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의 햇살이 여유로운 봄의 소식을 전해주고, 양지바른 곳의 따뜻한 햇살이 겨울 내내 움츠려있던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3월은 날씨변화가 많고 황사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함으로써 너그러운 봄의 미소에 취하기보다는 생동하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제73기상전대 대령 엄영경



## 독자의 소리

책표지에 있는 T-50을 보니 마음 든든합니다. 작지만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군』을 보면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남 여수시 여서동 이원균

‘다채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공군』을 보고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얼굴에 작은 행복을 알려주는 『공군』 사랑합니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 전정호

그저 행복합니다. 알차고 사랑스럽고 힘이 되는 내용. 잔잔한 감동과 함께 사람 사는 진솔한 이야기, 주옥같은 각종 테마들. 모든 테마들이 혼자 읽기 아깝습니다.

전남 순천시 서면  
윤정자



휴가 때마다 인사동에 꼭 한 번씩은 들르는데 인사동에 관한 기사를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역시 『공군』이군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충북 청원군 내수읍 조유태

공군참모총장 T-50 시제기 시험비행에 관한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 접해 알고는 있었지만, 『공군』에서 사진과 함께 대하니 참모총장님이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개발 중인 시제기를 직접 탑승하신 총장님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참된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이제욱

몇 달 후면 전역하게 되는 병장입니다. 군 생활을 『공군』 보는 재미로 했는데, 전역 후 밖

에서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임연경

항상 맨 뒤 표지에 있는 시들이 맘에 와 닿습니다. 계속 유익한 소식들 부탁드립니다.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장광훈

최근 인터넷이나 MP3 휴대폰 등을 통해 음악을 무료로 전송 받는 것의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법률상식 - 음악의 저작권법』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김부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늠름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전남 여수시 선원동 남창우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6.1~2006.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31~7, 02) 506-6231~7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2005. 3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61쪽에

# 다른 그림 찾기

##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가입교 훈련을 받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제57기 예비생도들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 지난호 정답



## ▶ 지난호 당첨자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김부열
-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홍현희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원태현
-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류창용
- 경남 사천시 수성리 유진오
- 전남 여수시 여서동 이원균
- 충남 당진군 송악면 전정호
- 전남 순천시 서면 윤정자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강수
- 경남 거제시 옥포1동 김진수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3월 20일까지

# 독수리의 교훈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안 정 훈

“대충 살면 대충 살게 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 베를린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말이다. 그는 스스로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영화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뒤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다. 김기덕 감독을 보며 독수리처럼 살아온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 아픔 없이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창공을 가로지르는 독수리의 모습은 경이롭다. 독수리의 위용은 1m에 이르는 큰 날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끼 때부터 반복되어온 혹독한 생존 훈련의 결과이다.

다른 새들은 깃털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동지를 짓지만 독수리는 가시나무, 돌 조각 등 새끼들의 피부를 해칠 수 있는 물질로 동지를 만든다.

이는 새끼의 교육을 위해서이다. 새끼가 날지 않으려고 하면 어미는 동지를 흔든다. 그러면 새끼는 자신을 찌르는 아픔 때문에 동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미는 아픔 없이는 도약을 이룰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어미는 새끼를 등에 태우고 난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던 새끼가 땅으로 곤두박질치면 어미는 이를 지켜보다가 땅에 닿기 직전에야 비로소 내려와 새끼를 낚아챈다. 이것이 하늘의 제왕, 독수리의 엄격하고 반복적인 조기교육 체계이다.

## 정해진 목표엔 최선을 다하라.

독수리는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부터는 잠시도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 집중하고 있다가 먹이가 사정권 내에 들어오면 서서히 하강하며 기선을 제압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집중하고 혼신을 다하는 것이다.

독수리의 대담함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 다른 새들은 폭풍이 다가오면 몸을 숨기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러다 날개를 적당한 각도로 유지하여 바람의 힘을 이용, 폭풍이 이는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폭풍우를 내려다보며 비바람이 지나 갈 때까지 기다린다. 시련이 왔다고 생각할 때, 움츠려들지 말고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해결하는 용기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새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공군이 되기를

공군은 작년 한해 '강한 공군'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첫 과정이 강한 훈련이다. 단순히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했다. 강한 조종사 양성을 위해 비행훈련의 모든 과정을 개선했다. 올해는 이 바뀐 훈련체계가 개선·보완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강한 공군으로서의 힘찬 비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봄을 질투하는 꽃샘추위가 매섭다. 시작의 계절, 들뜬 마음이 아니라 독하게 각오를 다지는 자연의 충고인 것 같다. 적당히 한다는 말은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독수리의 자세로 새봄을 맞이해야겠다. Ⓢ

알립니다

##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제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 보 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ksh0450@af.mil

### 문 의

02)506-6233, 호)6233



# 제20회

# 공군창작

# 작품공모

### ◆응모대상

공군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기술고교생

### ◆작품접수

2005년 7월 18일 ~ 8월 23일

### ◆작품내용

공군의 활약상, 영공방위의 현장 및 호국의지 등을 표현한 작품

### ◆공모부문

한국화, 서양화, 시각디자인, 서예, 사진, 프라모델

### ◆시상내역◆

#### 개인상

대 상(부문별 1명)-참모총장상 및 부상 500,000원  
우수상(부문별 1명)-참모총장상 및 부상 300,000원  
특 선(부문별 2명)-참모총장상 및 부상 100,000원  
※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단체상

최우수부대(1개부대) - 참모총장상 및 부상 1,000,000원  
우수부대(2개부대) - 참모총장상 및 부상 500,000원

#### 기타문의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효 - 62)  
각 부대 정훈(공보)실

## 공군본부